

공동체 소식



성경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구원사업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 매일미사 129쪽 참조.

- 오늘은 부활시기의 마지막 날로서,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본당 '봄철 야외행사'에 수고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5/20(주일), 교중미사 후.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142 (1-4절)	510	167	142 (5-7절)
차 주	22	210	176	77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차 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김대연 요셉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5/13	35 명	142 달러	500 달러
(총 2 세대)			

주님 승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5월 20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잃고 뽀뽀 숨어지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선물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ㄷ-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생명의 말씀

성령, 사랑의 선물



예수님은 분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 속에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 사실을 알린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여전히 스승을 잃은 슬픔에 잠겨 “침통한 표정”(루카 24,17)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아직 기쁨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과연 성령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머무르시자, 제자들은 이제 확신에 차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 광경을 장엄하게 묘사하며, “불꽃 모양의 혀들”(사도 2,3)이 나타나 제자들 위에 내려 앉았고, 그러자 이들은 성령에 가득 차 갖가지 언어로 하느님의 업적을 말하였다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다’라는 신비로운 표현은 아마도,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 자녀들 가운데 머무르시며 그들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셨다’고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시듯, 성령은 곧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 6.5.7) 하느님 사랑의 힘이 제자들을 감싸자 그들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떨쳐 버리고 일어나 마치 판사람이 된 듯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곧 사랑 자체라는 점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라는 제2독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곧, 성령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사와 선물은 근본적으로 자기 만족이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

로의 잘남과 의로움을 뽐내는 경연장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 안으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요한 15,13) 예수님의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갑질’ 문제는, 이런 섬기는 사랑의 결핍을 드러내는 증상이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만연하지 않은지 반성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각 단체 사이에, 혹은 단체장과 단체원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권한의 차이는,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워 갑질을 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직무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갑질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성령의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당신이 닳은 걸까요?
당신을 닳은 걸까요?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당신이 생각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외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주섬주섬 옷섭에서
꺼내주는 용돈
'올라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챙기시는 분
나보다 나의 앞길을 더 많이 걱정하시는 분

그래서 두 분은 참 많이 닳았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10)
제 인생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낀 적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리교사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해 여름,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틈틈이 공부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공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학교 준비를 해야 했고 그때 제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교리 교사도 부족했고 기존과 다른 기획으로 신앙 학교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친 데 뿔친 격으로 시험일자는 하필 신앙 학교를 떠나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 너무 힘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고 혼자 성당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즐겨 들었던 성가가 '눈물이 흘러도' 였으니 혼자 마음 앓이 하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신앙학교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고 공부는 잠시 미뤄두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험 당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지를 훑어보는 순간 저는 놀라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잠깐 틈틈이 보았던 내용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신앙 학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합격자 발표날은 교리교사 연수를 가는 날이었고 결과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전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당 봉사를 계속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력서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도 봉사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와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정 중에서 봉사를 먼저 선택했는데 신기하게도 사회생활의 고비들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편찮아지신 부모님이 나아질 수 있었던 일, 신자가 아니었던 여자친구를 신자로, 그리고 배우자로 맞이한 일 그로 인해 책을 쓰게 되고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일 등 그분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봉사하고 노력할 테니 말입니다.

- 전승환 레오 | 작가

교리상식



미사 때 왜 종을 치나요?

미사 때 종을 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입니다. 미사 때 치는 종은 모두 이 거룩한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 종을 치는 경우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 서른세 번의 종소리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신 헛수와 관계있고, 부활성야 미사의 종소리는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만찬 성목요일과 부활성야 전례 때 치는 종과 미사 중 성변화 때 치는 종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전례의 필수 요소인 반면 후자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

